



“伊 살린다” “佛 사른다” 토티 ‘고별 혈투’ 지단

10일 베를린서 결승전

최후의 결전만 남았다. 지난 달 10일 독일 뮌헨에서 개막된 '65억 지구촌의 축제' 2006 독일월드컵 축구대회가 오는 10일 오전 3시 베를린 올림피아슈타디온에서 열리는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와 '아트사커' 프랑스의 한판 승부로 막을 내린다. 이탈리아가 홈팀 자격으로 결승에 나서기 때문에 전통의 푸른색 유니폼을 입는다. 반면 프랑스는 '불패의 흰색' 유니폼을 입는다. <리피 vs 도메네크 '지략과 독심의 대결'> 마르셀 리피 이탈리아 감독은 "공격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수비는 완벽한 자신감에 차 있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리피 감독은 결전이 승부차기까지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페널티킥 키커들을 골라 비밀리에 훈련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몽 도메네크 프랑스 감독은 조별리그까지 프랑스 언론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선수단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16강 토너먼트 이후 독심있는 전술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브라질과 8강전, 포르투갈과 준결승에서 리드를 잡은 뒤 수비수가 아니라 공격수를 잇따라 투입해 승부를 굳히는 배장을 자랑했다. <지단-토티 '고별 혈투'> '아트사커 마에스트로' 지단 지단(레알 마드리드)은 이미 현역은퇴를 선언했고 이탈리아의 베테랑 미드필더 겸 스트라이커 프란체스코 토티(AS 로마)도 독일월드컵을 끝으로 대표팀

에서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혔다. 둘 다 마지막이라는 다짐으로 배수진을 친 것이다. 지단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어법으로 '죽느냐, 사느냐'를 입에 물었다. 토티는 조별리그까지 실망스러운 플레이를 보였지만 준결승부터 팀에 강한 정신력을 불어넣는 리더로 활약하고

있었다. <엘리손도의 손' 어느 쪽을 택할까> 국제축구연맹(FIFA)은 결승 '포정전'으로 논란에 휩싸여있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오라시오 엘리손도(42) 심판을 선택했다. 지난 달 24일 하노이에서 열린 한국과 스위스전에서 한때 오프사이드 오심 논란에 휘말렸던 엘리손도는 사상 처음 월드컵 개막전과 결승전을 모두 맡아본 심판으로 남게 됐다. <공격진 프랑스, 미드필더진 이탈리아 우위> 양팀 전력을 공격진, 미드필더진, 수비진으로 나눠보면 프랑스가 공격력에서는 상대적으로 앞서고 미드필더진은 이탈리아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점쳐진다. 포백(4-back) 수비는 도저히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백중세다. 프랑스는 리에리 안리(아스날) 원톱에 의존하지만 좌·우 측면의 플로랑 말루다(리옹), 프랑크 리베리(마르세유)가 스피드를 살려 '실탄'을 지원한다. 지단의 전진 패스와 프리킥도 무섭다. 이탈리아는 투카 토니(피오렌티나)를 축으로 토티와 마우로 카모라네시(유벤투스)가 삼각편대로 공격에 나선다. 이렇기에서는 프랑스에 비해 떨어진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델 피에로와 알베르토 질라르디노(AC밀란) 등 '조커 카드'에서 프랑스보다 낫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미드필더진은 '두계'에서 이탈리아가 앞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결승전 이탈리아 - 프랑스 예상 선발

이탈리아	프랑스
1. 골키퍼: 프란체스코 토티 (75.327 생, 190cm, 80kg, AS 로마(이탈리아))	1. 골키퍼: 티에리 앙리 (77.817 생, 189cm, 80kg, 아스날(잉글랜드))
2. 수비수: 마르셀 리피 (감독)	2. 수비수: 레몽 도메네크 (감독)
3. 공격수: 프란체스코 토티 (10번), 알베르토 질라르디노 (9번), 마우로 카모라네시 (14번), 마르셀 리피 (11번), 프랑크 리베리 (7번), 니콜라 피렌티 (16번), 로베르토 토리도 (15번), 알레시 코르디 (13번), 안토니오 디 나폴리 (17번), 파올로 로시 (18번), 로베르토 아사노 (19번), 로베르토 아사노 (20번), 로베르토 아사노 (21번), 로베르토 아사노 (22번), 로베르토 아사노 (23번), 로베르토 아사노 (24번), 로베르토 아사노 (25번), 로베르토 아사노 (26번), 로베르토 아사노 (27번), 로베르토 아사노 (28번), 로베르토 아사노 (29번), 로베르토 아사노 (30번), 로베르토 아사노 (31번), 로베르토 아사노 (32번), 로베르토 아사노 (33번), 로베르토 아사노 (34번), 로베르토 아사노 (35번), 로베르토 아사노 (36번), 로베르토 아사노 (37번), 로베르토 아사노 (38번), 로베르토 아사노 (39번), 로베르토 아사노 (40번), 로베르토 아사노 (41번), 로베르토 아사노 (42번), 로베르토 아사노 (43번), 로베르토 아사노 (44번), 로베르토 아사노 (45번), 로베르토 아사노 (46번), 로베르토 아사노 (47번), 로베르토 아사노 (48번), 로베르토 아사노 (49번), 로베르토 아사노 (50번)	3. 공격수: 니콜라 피렌티 (16번), 로베르토 토리도 (15번), 알레시 코르디 (13번), 안토니오 디 나폴리 (17번), 파올로 로시 (18번), 로베르토 아사노 (19번), 로베르토 아사노 (20번), 로베르토 아사노 (21번), 로베르토 아사노 (22번), 로베르토 아사노 (23번), 로베르토 아사노 (24번), 로베르토 아사노 (25번), 로베르토 아사노 (26번), 로베르토 아사노 (27번), 로베르토 아사노 (28번), 로베르토 아사노 (29번), 로베르토 아사노 (30번), 로베르토 아사노 (31번), 로베르토 아사노 (32번), 로베르토 아사노 (33번), 로베르토 아사노 (34번), 로베르토 아사노 (35번), 로베르토 아사노 (36번), 로베르토 아사노 (37번), 로베르토 아사노 (38번), 로베르토 아사노 (39번), 로베르토 아사노 (40번), 로베르토 아사노 (41번), 로베르토 아사노 (42번), 로베르토 아사노 (43번), 로베르토 아사노 (44번), 로베르토 아사노 (45번), 로베르토 아사노 (46번), 로베르토 아사노 (47번), 로베르토 아사노 (48번), 로베르토 아사노 (49번), 로베르토 아사노 (50번)

FIFA 월드컵 13위 8위

4-3-2-1 마르셀 리피 감독 레몽 도메네크 감독

2006 독일월드컵 개최 **1936.6.12~2000.7.2 기준

결승전 한판 15억 걸렸다

월드컵 우승팀 185억...준우승은 170억

한국은 45억 배당

'15억원이 걸린 최후의 결전(?)'
2006 독일월드컵축구 결승전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대회 우승팀은 얼마를 벌까. 10일 오전 베를린 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 열리는 프랑스-이탈리아 결승전 승리팀은 자그마치 2천450만 스위스프랑(약 185억원)의 돈방석에 앉게 된다.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총 7경기를 치렀으니 한 경기당 26억여원씩을 벌었다. 대회가 열린 한 달 간 하루에 6억여원씩 벌어들인 셈이다. 준우승팀의 수입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 준우승팀은 우승팀보다 15억원이 적은 2천250만 스위스프랑(약 170억원)을

받는다. 월드컵 결승전은 돈으로만 따진다면 15억원이 걸린 한 판 승부가 되는 것이다. 9일 오전 3-4위전을 치르는 독일과 포르투갈도 이미 각각 2천150만 스위스프랑(약 162억원)씩의 짙짙한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마지막 4룡(龍)'에 들지 못하고 8강에 오른 것으로 만족해야 했던 4팀은 훨씬 적은 1천150만 스위스프랑(약 87억원)씩만 챙겨 고향에 돌아가야 했다. 또 8강행에 실패한 8개 팀은 850만 스위스프랑(약 64억원)씩을, 조별리그 3 경기를 끝으로 집에 돌아간 한국 등 16개 팀은 600만 스위스프랑(약 45억원)씩을 삼금 및 출진수당으로 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설기현, 프리미어리그 입성

몸값 26억원 '레딩' 이적

'스나이퍼' 설기현(27)이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영표(토트넘)에 이어 한국 축구 선수로는 세번째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게 됐다. 2006-2007년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에 승격한 프리미어리그 레딩의 구단 홈페이지(www.readingfc.premiervt.co.uk)는 7일 "더 로얄스(레딩의 애칭)가 100만파운드의 이적료에 올버햄프턴의 설기현을 영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레딩 구단은 설기현의 몸값이 150만파운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했다. 영국 BBC 방송 인터넷포드 레딩이 설기현의 소속 팀인 퀘피언십(2부리그) 올버햄

프턴과 150만파운드(26억2천만원)의 몸값으로 이적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는 100만파운드는 올버햄프턴에 선 지급되고 50만파운드는 설기현의 출전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옵션이 붙어있다. BBC는 올버햄프턴이 경우에 따라서는 설기현을 다시 영입할 수 있는 옵션 조항도 계약 조건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독일월드컵 조별리그가 끝난 뒤 대표팀과 함께 귀국한 설기현은 9일 오후 1시35분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하는 항공편으로 영국 버밍엄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설기현은 런던 서쪽 외곽에 있는 레딩 구단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은 뒤 정식으로 입단 계약을 맺고 팀 훈련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미>



<박세리>

위성미-박세리 맞대결 눈앞

HSBC챔피언십 한국선수 8명 32강 진출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7·나이키골프)와 부활한 '여왕' 박세리(29·CJ)가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여자매치플레이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맞대결을 눈앞에 뒀다. 박세리는 7일 미국 뉴저지주 글래스톤의 해밀턴팜골프장(파72, 6천523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앤젤라 스탠퍼드(미국)에게 5홀차 대승을 거두 기쁘하게 2라운드에 진출했다. 2번 시드를 받은 위성미도 63번 시드 캔디 하네만(브라질)을 5홀차로 일축하고 32강이 겨우는 2회전에 올랐다. 로리 케인(캐나다)과 32강전을 치를 박세리와 김초롱(22)을 2회전 상대로 맞은 위성미가 3회전에 오

르면 8강 진출을 놓고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 출진선수 64명 가운데 30%에 이르는 한국인 또는 한국계 19명 가운데 8명이 승전고를 울렸지만 11명은 탈락했다. 김미현(29·KTF)은 니콜 카스트레일(미국)을 4홀차로 제압하고 2라운드에서 로라 데이비스(잉글랜드)와 16강 진출을 다룬다. 이선화(20·CJ)는 송아리(20·하이마트)를 3홀차로 꺾었고 박희정(25·CJ)은 레이철 헤더링턴(호주)을 1홀차로 따돌렸다. 거의 이변없이 끝난 1라운드에서 배경은(21·CJ)은 미야자토 아이(일본)을 2홀차로 꺾어 돌풍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대영 심판

3·4위전 부심

한국인 심판으로는 유일하게 2006독일월드컵 축구대회 심판을 맡고 있는 김대영(44) 부심이 9일 새벽 4시 치러지는 독일과 포르투갈의 3·4위전에 배정됐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실은 7일 '김대영 부심'으로부터 3·4위전에 배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국인 심판이 역대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이후까지 남아 경기에 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대영 부심은 이번 월드컵부터 시행된 심판진 '트리오 시스템'에 따라 카미카와 토루 주심 및 히로시마 요시카즈 부심과 함께 9일 새벽 슈투트가르트 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독일과 포르투갈의 3·4위전 부심으로 나서게 된다.

모레스모-에빙

웬블던 결승 격돌

아틸리 모레스모(세계랭킹 1위·프랑스)와 쥐스틴 에빙(3위·벨기에)이 올 1월 호주오픈에 이어 총상금 183억원이 걸린 웬블던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모레스모는 6일 밤 영국 올림피아드클럽에서 벌어진 4강전에서 '요정' 마리아 샤라포바(4위·러시아)를 2-1로 물리치고 이 대회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에빙은 앞서 열린 준결승전에서 같은 나라의 킵 클리스티스(2위)를 2-0으로 제압하고 지난 200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 대회 결승에 올랐다. 두 선수는 올 1월 호주오픈 결승에서 한 차례 격돌했고 당시 에빙이 경기 중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기권하면서 모레스모가 생애 첫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최경주 첫날 11위

PGA 시알리스웨스턴 오픈

'뱅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알리스웨스턴오픈 첫날 공동 11위에 올랐다. 최경주는 7일 미국 일리노이주 레먼트의 코그힐골프장(파71, 7천326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3언더파 68타를 쳤다. 선두 조 오길비(미국·66타)와는 2타차다. 필 미켈슨(미국)과 비제이 심(피지)은 나란히 4언더파 67타를 치면서 공동 5위에 자리잡아 우승 경쟁을 예고했다. 하지만 타이거 우즈(미국)는 버디 2개에 보기 3개로 1오버파 73타를 쳐 공동 82위로 처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승엽 시즌 100안타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시즌 100안타를 쌓았다. 이승엽은 7일 일본프로야구 히로시마 도요 카프와 원정경기에 4번 타자로 나와 1회 초 1사 1, 2루에서 상대 선발투수 구도다 히로키의 6구째 직구를 받아쳐 우월 1타점 2루타를 날렸다. 이승엽은 이로써 올 시즌 80경기만에 100안타 고지에 올랐다. 이승엽은 일본 무대 데뷔 시즌이던 2004년에는 100경기에서 80안타를 때렸고 지난 시즌에는 117경기에서 106안타를 날렸었다.

배구스타 김세진 은퇴

지난 1990년대 한국 남자배구의 간판으로 활약했던 '월드스타' 김세진(32·삼성화재)이 22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감한다. 삼성화재는 7일 그동안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던 김세진에게 팀에 복귀하도록 설득했으나 본인이 선수생활을 접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은퇴를 공식 발표했다. 김세진은 지난 1995년 삼성화재 창단 멤버로 입단, 신진식(31), 김상우(33)와 함께 팀의 겨울리그 9연패 위업을 이룩했던 간판 공격수다.

신진식 9일(월)

- 8일(토)
 - ▲메이저리그(뉴욕-탬파베이)(08 : 05-Xsports), <애리조나-콜로라도>(09 : 55-Xsports)
 - ▲N-리그<창원-수원>(15 : 00-KBS SKY SPORTS)
 - ▲프로야구(LG-롯데)(18 : 50-SBS스포츠), <KIA-현대>(19 : 00-MBC ESPN)
 - ▲웬블던 테니스 여자단식결승(22 : 30-MBC ESPN)
- 9일(일)
 - ▲PGA 투어 사할리스 웨스턴 오픈 3R(03 : 00-SBS스포츠)
 - ▲메이저리그(신시내티-애틀랜타)(07 : 55-Xsports)
 - ▲UFC 61 : Bitter Rivals(실비아-알로프스키)(11 : 00-Xsports)
 - ▲프로야구(한화-삼성)(16 : 30-KBS SKY SPORTS)
 - ▲프로야구(LG-롯데)(16 : 50-SBS스포츠), <KIA-현대>(17 : 00-MBC ESPN)
 - ▲웬블던 테니스 남자단식결승(21 : 30-MBC ESPN)